



보라매



발행처 : 대한민국공군전우회, (사)공군발전협회 발행인 : 박종현 편집인 : 박수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Homepage: www.airforce.ne.kr / www.arokaf.co.kr E-mail: kafva-airforce@naver.com 전화: 02-825-8461 FAX: 02-825-8460

공군전우회 2026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제30대 공군전우회장 및 제11대 공군발전협회장에 박종현 전 공군참모총장 취임



공군전우회 중앙회는 3월 25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박기완 공군참모차장과 역대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산하 및 협력단체장, 전국 지부·지회장과 수상자 가족 등 220여 명의 회원과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정기총회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각종 포상 수여식과 주요 회무 보고로 이어졌다. 영예로운 보라매상 개인부문은 현역 장병 2명(상금 각 100만 원)이 수상했으며, 최우수 단체상인 보라매상 단체상은 광주광역시지부에게 돌아갔다. 또한 자랑스러운 공군인상에는 신익현 LIG D&A 대표가 선정되었으며, 이 밖에도 장한 어머니상, 공로상, 공군참모총장 감사패 수여가 진행되었다.

이어 이사회 심의를 거친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고, 지난 3월 4일 정책자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박종현 전 공군참모총장의 제30대

회장 선임안이 최종 인준되었다.

이어진 이·취임식에서 제29대 이계훈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활동으로 현역과 예비역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 각 지부·지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안보 상황이 불확실한 지금, 예비역 단체인 우리 전우회가 현역 후배들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 '강한 공군, 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고 당부했다.

전우회기를 이양받은 제30대 박종현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무력 충돌 등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전우회는 후배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임기 중점 과제로 ▲소통을 통한 전 세대 '화합'의 공동체 구축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기금 및 사업 기반' 확충 ▲항공우주력연구원 중심의 '미래 공군' 정책 지원 강화를 제시하며 전우회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정부 행사로 부득이 불참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해 박기완 참모차장이 축사를 대독했다.

손 총장은 "지난 58년간 공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전우회의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올해 공군은 국산 전투기 KF-21, C-390 대형수송기 등 신규 자산의 전력화를 차질 없이 완수해 첨단 정예 공군으로 도약할 테니, 전우회 회원 여러분

께서도 한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공식 행사 후 이어진 2부에서는 공군본부의 '공군 정책 소개 브리핑'을 청취하며 미래 항공우주력을 향한 공군의 발전상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만찬과 친교 시간을 통해 끈끈한 전우애를 다지며,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힘차게 비상할 공군전우회의 2026년을 기약했다.

수상자 명단

- * 보라매상 : 공군상사 김용(항공우주안전단), 주무관 심영미(공군본부 정책실)
- * 보라매상 단체 : 광주광역시지부
- * 자랑스런 공군인상 : 신익현(LIG D&A 대표)
- * 자랑스런 장한 어머니상 : 안현순, 송우영(공군순직조종사부인회)
- * 공로상 : 신문식(대구지부 고문), 김춘식(창원지회장), 송요정(수원지회장), 최원규(강릉지회장), 홍창표(골프동호회), 이강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사업본부장)
- * 공군참모총장 감사패 : 김호연(주) 빙그레 회장, 문영배(중앙회 부회장)

제11전투비행단 김기재 소령, '2025 공군 최우수 조종사' 영예

공군은 3월 26일 공군호텔에서 손석락 참모총장 주관으로 '2025년 우수 조종사 시상식'을 개최하고,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 김기재 소령에게 공군 최우수 조종사 표창을 수여했다.

'탐간'이 사격에 중점을 두는 반면, 최우수 조종사는 비행 시간, 주요 작전 참가, 부대 생활 등 1년간의 임무 수행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공군 최고의 영예다. 총 1,580여 시간의 비행기록을 가진 김 소령은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임무지휘관 활약 및 다수의 비상출격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

과 함께 제6대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김신 장군의 삶과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김신상' 수상자로서 상금 1,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또한 부문별 최우수 조종사로는 하창무 소령(전투임무, FA-50), 광명석 소령(공중기동, HH-60), 김태훈 소령(교육훈련, KF-16)이 각각 선정되어 국방부장관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손석락 참모총장은 "우수 조종사는 공군의 4대 핵심 가치를 모두 충족한 진정한 MVP"라며, 작전 능력 강화와 팀워크 향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헌 회장 취임사



존경하는 역대 참모총장님, 내외 귀빈과 멀리서 참석해 주신 지부지회 임원, 그리고 정부행사로 인해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대신해 참석해 준 박기완 공군참모차장을 비롯한 우리 공군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선후배, 동기 회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공군 전우회 제30대 회장과 공군발전협회 제 11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이처럼 막중한 소명을 부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먼저 지난 2년간 '현장 중심의 소통'을 실천하며 전국 38개 지부·지회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신 이계훈 회장님의 노고

와 업적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회장님께서 다져놓으신 화합의 토대 위에 저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우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과 이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는 글로벌 물류와 에너지 안보를 강타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경제에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먼 이국의 전쟁이 곧바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은, 굳건한 안보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뼈저린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기존의 AI와 우주 전력으로 대변되는 첨단 기술의 파고에 더해, 이처럼 현실로 닥친 물리적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 전우회의 역할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우리 전우회는 단순히 친

목을 나누는 단체를 넘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인 후배 공군 장병들이 오직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임기 동안 '화합과 도약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한 해'라는 업무 목표 아래 다음 세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소통을 통한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공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에서 나옵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청년 예비역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용하여, 전 세대가 하나로 뭉치는 역동적인 전우회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 기금 및 사업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우회가 직면한 가장 큰 현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전우회 운영의 자립도를 높이고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공군발전협회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미래 공군'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항공우주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 환경과 급변하는 국제 안보 정세에 대비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군이 정예 우주공군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비역들의 전문성이 정책적 대안으로 심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로 뭉칠 때 공군은 더욱 강해지고, 대한민국은 더욱 안전해집니다. 저와 제30대 집행부가 내딛는 이 새로운 여정에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5일
대한민국 공군전우회·공군발전협회
회장 박종헌

2026년도 정책자문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3월 4일 공군호텔에서 역대 참모총장 및 외부 자문위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정책자문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계훈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25년도 회무보고와 차기 회장 추천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칙에 따라 이광학 호선의장 주관하에 구성된 심의위원

회는 제32대 참모총장을 역임한 박종헌 장군(예 대장, 공사 24기)을 제30대 전우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천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우회의 대외협력 및 외교 활동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후임 회장 대상자를 사전 내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참석자 간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공군2사총동문회 신규회장단 본회 내방



공군2사총동문회 신규임 회장단 6명이 2월 11일 본회를 방문하여 이계훈 회장과 환담을 나누었다.

김장희 전임회장과 이용국 신임회장 등 임원진은 공군2사총동문회의 주요 현안 등을 간략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본회 발전기금으로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후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 하면서 행복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 이회장은 환담에서 "공군2사총동문회의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군발전협회 신년 정책간담회 개최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원(원장 윤우)은 1월 20일, 공군항공안전단에서 공군본부 정책실장을 비롯한 현역 관계자와 협회 고문·자문위원, 연구위원, 협력업체 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신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군의 핵심 현안을 공유하고 예비역과 현역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 발표가 큰 호응을 얻

었다. 신보현 회원(공사 21기, 에어로피에 이치엠테크 대표)의 'T/FA-50 F404 엔진 EHM 체계' 소개와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 이사장의 '국방 AI(AI in Defense)' 발표를 통해 첨단 기술 군으로 도약하는 공군의 미래상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공군발전협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2026년 한 해 동안 공군 정책 지원 및 안보 학술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록히드마틴 한국지사 대표 초청 및 감사패 증정

본회 이계훈 회장은 3월 23일 이원의 록히드마틴 한국지사 대표를 초청해 감사패를 증정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록히드마틴은 매년 공군발전협회 안보 학술회의에 거액을 후원하며 공군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다.

이날 이원의 대표는 "공군에서 근무하신 부친 덕분에 어린 시절 여러 비행단에서 다양한 전투기를 보며 자랐다"며 공군에 대한 각별하고 변함없는 애정을 전했다.

이에 이계훈 회장은 공군 예비역을 향한 록히드마틴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양측이 좋은



협력 관계를 굳건히 유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공군전우회-서울닥터스클럽, 업무협약 체결

공군전우회는 2월 4일 공군호텔에서 서울닥터스클럽과 전우회원들의 건강 증진 및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계훈 공군전우회장과 박신규 수석부회장, 서울닥터스클럽 현승협 의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군전우회 회원들은 서울닥터스클럽 제휴 병원 이용 시 비급여 진료비의 최대 2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RE:BOSCO Longevity Club' 이용료 30% 할인 혜택 등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제휴 병원 정보 공유와 의료 상담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전우회원들의 실질적인 혜택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계훈 회장은 회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복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예비역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외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회장단 친선운동 및 간담회



공군전우회 중앙회 회장단은 3월 11일 수원기지 체력단련장에서 친선운동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2년간 중앙회를 위해 힘써준 부회장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계훈 회장은 “재임 기간 중 보내준 많은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우회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기총회를 앞두고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보 소식

국산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가 마침내 위용을 드러냈다.

3월 25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이 거행됐다. 2001년 전투기 개발 천명 이후 25년 만에 거둔 값진 결실이다.

KF-21은 최대 속도 마하 1.8, 무장 탑재량 7.7톤을 자랑하는 4.5세대 전투기다. 선진국의 기술 이전 제한 등 숱한 난관이 있었으나, 산·학·연 6만 4천여 명의 헌신으로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술과 의지로 하늘에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해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며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다짐했다. 1호기는 성능 확인을 거쳐 오는 9월 공군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사관학교 9년만에 통합임관식 거행



2월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석 하에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9년 만에 거행됐다. 육·해·공군 및 해병대 신임 장교 558명은 '국가 수호의 선봉'을 다짐하며 영예로운 소위 계급장을 달았다.

이번 임관식은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합동 임관의 전통을 잇고, 각 군 간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74기 김석현 소위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 상을 수여받으며 공군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3D 프린팅을 활용해 UAV 엔진을 설계한 정연제 소위 등 첨단 항공우주 시대를 이끌 인재들이 대거 포함되며 주목받았다.

대통령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3월 27일 국방부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됐다.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주요 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해 핵심 국방정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우리 군이 주도하는 '자주 국방'과 조속한 전작권 회복을 역설했다. 또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발맞춘 '스마트 강군'으로의 도약과 국방개혁을 주문하고, 오직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 확립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접경지역 안정 등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끝으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강'을 이룰 수 있는 첨단 강군 비전을 재차 강조하며 전후방 장병들을 격려했다.

국방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본격화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전환제권 전환을 위해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완료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칠 계획이다.

이미 상설화된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등과 함께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확립한다.

국방부는 3월 17일 실시한 국회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본격 추진하며, 대미 핵연료 협의 및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안정한 중동 정세에 대비해 파병부대의 24시간 안전을 최우선 확보 중이며,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위협에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대북 억제력을 철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F-21 AESA 레이다 성능 검증 착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KF-21의 핵심 장비인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AESA) 레이다의 공대지·공대해 모드 시험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ADD는 1월 29일 대전 본소에서 방위사업청,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KF-21 추가 무장시험 AESA 레이다 개발 및 체계통합' 사업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2028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KF-21이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과 해상의 표적까지 탐지·추적할 수 있도록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대공·공대지 모드 동시 운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KF-21의 전전후 다목적 임무 수행 역량을 완성할 계획이다.

ADD는 이번 성능 검증을 통해 독자적인 무장 장착 능력을 확보하고, 향후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청, 전자전기 개발 착수

방위사업청은 1월 20일 LIG D&A 판교하우스에서 합동참모본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전기(Block-I) 체계개발 사업 착수회'를 개최하고 개발의 첫걸음을 뒀다.



이번 사업은 총 1조 9,198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3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전자전기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적 통합방공체계와 무선지휘통제체계를 무력화하는 핵심 무기체계로, 원거리 재밍을 통해 아군 공중 전력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업체 주관으로 진행되어 국내 방산 기업의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높은 국산화율을 통해 K-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자전기 Block-I은 2034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며, 이후 기술 발전을 반영한 Block-II 개발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군 안전의 미래, '군안전협회' 공식 출범

국방 안전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선진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민간 주도 전문기구인 사단법인 군안전협회가 2월 4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창립 기념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미래를 향한 국방 안전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협회는 전문성·혁신성·현장성·상생을 4대 핵심 가치로 삼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최적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군 안전 분야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군항공안전단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민·관·군이 함께하는 강력한 '안전거버넌스'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방부 소관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한 협회는 앞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 보존과 장병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韓-캐나다, 포괄적 안보협력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2월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2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열고 군사·국방 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도 착수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양국 간 군사 비밀정보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게 되며, 정부 조달사업 입찰 등 방위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회의에서 우리 측은 우수한 한국형 잠수함의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도 펼쳤다.

또한, 양국은 전통적 안보를 넘어 '우주안보대화'를 출범하고 인공지능(AI)과 초국가적 사이버 위협 대응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군 인사법 개정, 초급간부 확보 청신호

국가 안보의 중추인 초급간부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았다.



1월 15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의원 214명 전원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초급간부 지원 강화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기복무 장려금의 '사각지대' 해소다. 그동안 대학 졸업 후 선발된 학사사관 후보생 등은 선발 시점이 늦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들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사관의 실질 소득 증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포함된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국방부는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제도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초급간부 획득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급간부용 '장기간부 도약적금' 전격 시행

국방부는 2월 24일 주요 시중 은행 및 군인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간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장기복무 선발 간부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100%를 매칭 지원하는 제도다. 만기 시 최대 2,315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해 초급 간부들의 실질적인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입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로 선발된 장교와 부사관이며, 3월부터 신청업무가 시작되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보상을 위해 2029년까지 초임 간부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인연금 해외송금 혜택 대폭 확대

국군재정관리단이 NH농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해외 거주 군인연금 수급자를 위한 금융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거주 수급자는 연금 송금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와 전신료를 전면 면제받으며, 모든 통화에 대해 확대된 환율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해외송금 서비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3월 25일부터 개선된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규 이용 희망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재정관리단에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재정관리단은 "앞으로도 연금수급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성인사 업무 일반직 공무원 전환

국방부가 군 인사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장성급 인사 업무를 현역 군인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2월 13일 입법 예고된 '국방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영관급 장교가 맡아온 요직인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직이 부이사관·서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를 전담할 '군인사운영팀'을 인사기획관실 산하에 신설하며, 팀장 역시 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특정 군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인사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군 고위직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인사 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